

특별 인터뷰

키쇼르 마부바니

싱가포르 국립대 리관우 정책대학원 학장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남단에 붙어 있는 초미미 국가 싱가포르. 한국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소국(小國)은 국제무대를 주름잡는 노련한 정치가(statesman)를 여러 명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리관우(李光耀) 초대 총리에 이어 요즘 세계적인 정치 사상가로 떠오르고 있는 키쇼르 마부바니(57) 싱가포르 국립대 리관우 공공정책대학원 학장. 마부바니 학장은 극심한 금융위기와 함께 아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저서 '아시아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가'(1999)

를 국내 일각 세계 지식계의矚目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엔 미국의 세계 평화 파수꾼 역할 회복을 주장한 저서 '소수의 시대를 넘어서'를 출간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그를 '아시아의 토인비' '신유교 사상의 막스 베버'라고 불렀다. 2005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와 영국 정치평론지 프로스펙트가 '이 시대 최고 지식 100인' 중 한 명으로 뽑은 그를 13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만났다.



“美와 中-이슬람 관계가 지구촌 운명 좌우”

“21세기 지구촌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미국의 역할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미국이 자신을 위협하는 상대 세력과 어떤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가에 따라 세계는 평화의 시대를 누릴 수도, 전쟁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앞대 세력은 어디를 말할까요.
 “중국과 이슬람 세계입니다. 미국과 이슬람의 관계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미중 관계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대체적으로 양호할 편 아닌가요.
 “정부와 사회 수준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 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관계는 우호적입니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는 다릅니다. 지난해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중국의 정치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을 때 중국 내에서는 반미주의의 불길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민주주의 압력으로 인해 발전 후 리사치처럼 대외관에 빠지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과 어떤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까.
 “중국은 미국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전후 독일과 일본처럼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바오 징택민(江澤民)식 세계질서 '이치요' 군사강국이 되는 것은 현재 중국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봉쇄(containment) 정책입니다. 중국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경제성장의 '열매'를 나눠 주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미국 경제압박입니다.”

“중국 이슬람과의 갈등이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부시 대통령이 아랍사익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는 좀 더 구조적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의 월병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타적인 이유에서든 국가 이익 때문이든 미국은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적 발전에 관심을 갖는 '온정적(compassionate)' 외교노선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미국은 변했습니다. 국내 정치적 고려가 외교정책을 좌우하게 된 거죠.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하고 있는데 미국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나라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 과거 미국이 '특별한(extraordinary) 나라'였다면 지금은 '보통(ordinary)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가 어떤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단기적 이익에 매달리다 보니 '이중 잣대'가 여기저기서 발생합니다. 정책의 일

관성 잃은 미의 대외정책 이슬람과 갈등 부추겨 경제대국 꿈꾸는 中, 미의 봉쇄정책 가장 두려워해
 日은 '아시아의 세기' 맞아 서구-아시아 선택 기로

관성을 잃게 되면서 나타나는 단명한 결과입니다. 미국은 '와일드카드'가 됐습니다. 가장 안정된 정치 시스템을 가진 미국이 국제정치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됐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미국의 8차회담에 비평을 두 차례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엔에서 보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으로 쿠바와 미얀마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폐쇄된 사회를 다루는 최악의 방법은 '고립(isolation)'입니다. 반면 최선의 방법은 '포용(engagement)'입니다. 소련도 미국의 포용 정책 때문에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중국만큼 주목을 받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의 성장 가능성과 국제적 위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은 인도의 부상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달리 인도는 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를 중국 경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도는 미

국의 중국 경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 중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인도는 일본과 다릅니다. 일본이 중국과의 갈등을 틈사하고 미국과 좀 더 가까워지려는 반면 인도는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한국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스나니나사 참배, 교차로 외곽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본은 '존재론적 위기(existential crisis)'를 겪고 있습니다.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일본은 줄곧 서구 쪽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시아 주변국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아시아의 세기'가 오고 있으니까

요. 일본은 이제 서구 클럽의 회원이 될 것인지 아시아의 회원이 될 것인지 근본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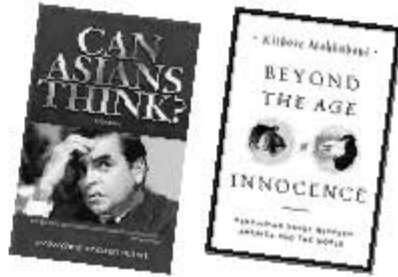
“지금도 '아시아의 세기'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냉전시대에 몰린과 함께 서구적 가치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아시아의 종말'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아시아의 귀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0%도 되지 못합니다. 2050년 세계경제 4대 강국이 될 나라(중국 미국 인도 일본) 중 3개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중국-인도, 중국-베트남, 인도-아시안 이슬람 등 아시아의 오랜 앙숙들 사이에 화해 무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500여 년 만에 세계 역사의 중심축이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권을 휩쓸고 있는 한류도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나요.
 “한류는 '아시아 르네상스'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학생시절 저는 중국이나 아시아 역사가 아닌 영국 역사와 셰익스피어 문학을 배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서구의 이미지보다는 아시아와 지역 문화에 더 친숙합니다.”

“한류는 '아시아 르네상스'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학생시절 저는 중국이나 아시아 역사가 아닌 영국 역사와 셰익스피어 문학을 배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서구의 이미지보다는 아시아와 지역 문화에 더 친숙합니다.”

“한류는 '아시아 르네상스'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학생시절 저는 중국이나 아시아 역사가 아닌 영국 역사와 셰익스피어 문학을 배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서구의 이미지보다는 아시아와 지역 문화에 더 친숙합니다.”

“한류는 '아시아 르네상스'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학생시절 저는 중국이나 아시아 역사가 아닌 영국 역사와 셰익스피어 문학을 배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서구의 이미지보다는 아시아와 지역 문화에 더 친숙합니다.”



“아시아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가”(1999년) “소수의 시대를 넘어서”(2005년)

● 마부바니가 본 리관우 'MPH 리더십'

싱가포르를 '일류 국가'로 탈바꿈시킨 리관우 초대 총리에 대한 싱가포르인들의 애정은 각별하다. 리 전 총리를 오랫동안 앞에서 지켜본 마부바니 학장은 인터뷰 도중 여러 차례 그를 '사부(mentor)'라고 불렀다. 아직도 내가에 머물고 있는 리 전 총리의 현 직명도 '장관들의 스승(Minister Mentor)'이다. 리관우 리더십의 성공 비결에 대해 묻자 그는 개인적인 얘기부터 꺼냈다. “성격에 보세요. 소수 인종 중의 소수 인종 출신인 제가

“능력-실용-정직으로

Meritocracy(능력), Pragmatism(실용), Honesty(정직)

성장이끈 영원한 사부”

싱가포르를 대표해 유엔 마사를 두 차례나 지냈다는 사실을...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일 겁니다.”

그는 신디(Sindh)족이다. 싱가포르 전체 인구의 0.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소수 인종. 그런 그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마부바니 학장은 'MPH' 이론으로 설명했다. MPH는 영어에서 '시간당 마일(Miles Per Hour)'의 의미로 흔히 쓰이는 약이지만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MPH는 리관우 리더십을 구성하는 3개 핵심 요소의 머리글자를 합친 것. Meritocracy(능력주의), Pragmatism(실용주의), Honesty(정직성)의 머리글자다.

싱가포르=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키쇼르 마부바니
- △1949년 출생
 - △1970년 싱가포르 국립대 철학과 졸업
 - △1976년 케냐다 법률학사 학학 석사
 - △1982-84년 미국 주재 싱가포르 무역사
 - △1985-89년 유엔 주재 싱가포르 대사(1차)
 - △1991-92년 학버드대 국제관계센터 방문교수
 - △1998-2003년 유엔 주재 싱가포르 대사(2차)
 - △2001년 2월, 2002년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2회 역임
 - △2004년 - 현재 싱가포르 국립대 리관우 공공정책대학원 학장
 - △주요 저서: '아시아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가?'(Can Asians Think?)(1999-국내 번역본 미출간), '소수의 시대를 넘어서(Beyond the Age of Innocence?)(2005-국내 번역본 미출간)